



효천 테마 독서 1학년



"생각"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

〈생각한다는 건 뭘까?〉 채인선 / 미세기

생각한다는 건 뭘까? 궁금한 것들이 많은 우리는 질문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갑니다. 생각한다는 건 나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기도 하고, 오늘 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, 궁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. 이런 질문들 속에서 꼬리를 문 생각을 이어나가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답을 찾아가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.

〈생각하는 아이〉 요나스 타울 / 봄의정원

소년은 매일 하던 것처럼 자기 전 우유를 마시고 이를 닦은 후 침대에 누웠어요.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아요.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어요. '우리 지구가 거대한 우주 속의 작은 구슬이고, 그 구슬 위에 사는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라면...?' 하고요. 생각 때문에 소년은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고,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소년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?



〈판생각 중〉 마리 도를레앙 / 풀빛

학교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었던 소년에게 그 일은 처음 일어났게 됐어요. 바로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. 소년의 마음을 붙잡고 싶던 부모님은 소년에게 피아노를 선물하지만 피아노 선물과 함께 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.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, 갈 수도 있는 여행 말이에요. 판생각을 하던 소년에게 판생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?

〈생각나무!〉 백명식 / 일곱난쟁이

'생각 없는 시'의 시장님은 고민에 빠졌어요. "사람들이 생각하고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없을까?" 하고요. 시장님과 딸 상큼이는 함께 고민하던 와중 마법사 궁금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. 궁금씨는 신기한 요술을 부린 특별한 마법가루를 상큼이와 시장님에게 줍니다. 이 가루를 먹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궁금증을 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요. 과연 생각 없는 시 사람들은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?

